



문서번호 : 15-09-미군문제연구위원회-01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전송일자 : 2015. 9. 25.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10매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다'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

청

신청인 최재철 외 20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청

위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해주희,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서초동)
전화 02-582-0606, 팩스 : 02-596-8004

피신청인 1.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과천시 관문로 47
전화 02-2110-3009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오산공군기지(Osan Air Base)내의
가. 탄저균 실험 및 훈련을 중단하고,
나. 실험실을 폐쇄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신청인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이며, 피신청인1은 현재 주한 미군을 총괄하는 사령관이고, 피신청인2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1).

2. 기초적 사실관계

가. 탄저균의 위험성

탄저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에 속하는데, 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를 의미합니다. 탄저균에 의해 발생하는 탄저병은 같은 법상 ‘제3군감염병’에 속하는 것으로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피부접촉, 음식, 공기흡입을 통해 탄저균에 감염될 수 있고, 공기흡입을 통해 폐에 감염되는 경우 최대 치사율이 97%에 이르는 것으로 노출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소갑제1호증 질병관리본부 자료).

뿐만 아니라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생물작용제’에 속합니다. 생물작용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의미합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3조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 기지 내내 운영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관리자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 처리 과정에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 오산 공군 기지 내에서 지속된 탄저균 실험

2015. 5. 28. 미 국방부는 유타 주의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주한미군기지로 배송됐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이 오산기지 '주한미군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서 처음으로 탄저균 실험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적어도 2013년부터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JUPITR),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에 따라 탄저균을 이용한 훈련이 계속 됐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는 2015. 7. 23.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실험실 절차 종합 검토 위원회'가 작성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 산하 유타 주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지난 10년간 일본, 영국,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조달·군수담당 차관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탄저균이 한국에서는) 오산공군 기지 연구실에만 실험용으로 보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해, 2013년 이전부터 오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

다. 탄저균 배달 사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대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미 국방부에서 탄저균 배달사고 사실을 발표한 직후인 2015. 5. 28.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오산기지를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갑 제2호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5.29.자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는 반입된 탄저균 샘플이 BSL(Bio Safety Level, 생물안전등급) 2급 실험실냉동고에 보관)

2) 질병관리본부 실험실생물안전지침에 따르면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실은 미생물이 갖고 있는 사람에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때 있다가 같은 달 27. 미 국방부로부터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통보를 받고 무조건 폐기했고, 실험실은 잠정 폐쇄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에서 실험실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주한미군 측이 밝힌 입장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 발표 직후 민변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반입된 탄저균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 폐기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보건복지부는 “폐기와 관련된 보고서는 없으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폐기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확인서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로 들어온 탄저균이 어떻게 폐기 됐는지에 대해 주한미군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소갑 제3호증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 실험실 폐쇄여부 역시 ‘잠정폐쇄할 것’이라는 답변 이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폐쇄됐는지,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라.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와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 및 주한미군의 대응 - 실험 및 훈련 계속 의사의 표명

미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사고’ 사실을 발표한 후 2달이 지난 2015. 7. 24. 탄저균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소갑 제4호증의1 미 국방부 조사결과 보고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8개 국가,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잘못 배송됐고, 그 배송의 근원지와 책임자를 알지 못한다. 이번 탄저균 사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취지였습니다.(소갑 제4호증의2 미 국방부 조사결과 보고서 번역 요약본) 이어 미 국방부가 만든 탄저균사태 관련 웹사이트 (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에 의하면 8. 6. 현재 193개

대한 위해 정도와 수행하는 실험 내용에 따라 생물안전등급이 정해지며 각 등급별로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물안전등급은 1급에서 4급으로 정해지고, 4등급이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제3위험군에 해당하는 탄저균은 BSL 3등급 실험실에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2급 실험실 냉동고에서 보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실험실에 잘못 배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탄저균 배달사고 소식이 밝혀진 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됐다는 점이 문제됐는데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탄저균을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해 어떤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탄저균을 배송할 때 완전히 사멸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탄저균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로 배송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이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지난 7. 24.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탄저균 식별실험을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동맹의 생물방어 협력 합동 실무단³⁾은 생물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미 국방부의 종합보고서는 주한미군 사령부 혹은 한국만을 특정해 작성된 보고서는 아니다.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생물방어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 시민과 양국의 군병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같은 달 29. 국방부 역시 합동실무단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생물방어 협력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의 중단 및 예방의 가능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소갑 제5호증 7.29.자 국방부 보도자료).

미측 역시 「미 NSC 수석국장 “북 위협 대처, 탄저균 실험 불가피”」라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한국과의 생물무기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실험 및 훈련을 계속할 의사를 표하였습니다.(소갑 제6호증 2015.9.8.자 한국일보 기사 출력물 “美 NSC 수석국장 “北 위협 대처 탄저균 실험 계속 불가피””)

3. 실험실 운영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실험중단 및 실험실 폐쇄의 긴급한 필요성

3)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2015. 7. 12.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입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특히 2015. 9. 23. 주간동아는 “탄저균 씻은 물 서해로 흘러갔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제는 당시 실험요원들이 탄저균 일부가 활성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장비와 피복, 도구를 감염 위험이 없는 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실험장비를 세척한 물이 실험실 내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게 최근 합동실무단의 핵심적인 우려사항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라고 밝혀 어찌되었든 절대 안전하다고만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소갑 제7호증 9.23.자 주간동아 기사출력물,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다”)

탄저균의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1978년 당시 소련에서 5g정도의 탄저균이 누출돼 최소 5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2001년 미국에서는 911테러 직후 탄저균 편지 배달 사건으로 22명이 감염돼 그 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100kg의 양으로 3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탄저균의 위험성은, 탄저균을 ‘고위험병원체’와 ‘생물작용제’로 규정하고 반입, 보관, 처리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관련 법률들 역시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저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을 중단하고 실험실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한미합동실무조사단의 입장이나 조사 결과에서 탄저균이 완전히 폐기됐는지 여부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탄저균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이는 하루빨리 이루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어려야 합니다.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없이는 실험의 가능성을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어떤 군사적 훈련도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5. 28. 미 국방부 발표 이후 4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관련 부처들의 입장 발표는 수차례 있었지만 정작 탄저균 실험 지속여부나 실험실 폐쇄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백하게 밝힌 적 없고 오히려 실험의 개연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저균 반입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바로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협에 노출돼있습니다. 신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평택 주민으로서, 생명과 평화를 관장하는 신부들로서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부디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소갑 제1호증 | 질병관리본부 자료 |
| 1. 소갑 제2호증 | 5.29.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
| 1. 소갑 제3호증 | 정보공개청구 처리결과 |
| 1. 소갑 제4호증의1 | 미 국방부 조사결과 보고서 |
| 1. 소갑 제4호증의2 | 미 국방부 조사결과 보고서 번역 요약본 |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